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7, No. 2

OPEN ACCESS

도서관 역할 변화에 따른 사서역량 인식 연구

A Study on Librarians' Perceptions of Competencies amid Changing Library Roles

이 수 영 (Su-Young Lee)*
조 상 은 (Sang-Eun Cho)**
양 지 안 (Ji-Ann Yang)***

〈 목 차 〉

Ⅰ. 서 론
Ⅱ. 도서관 역할 변화
Ⅲ. 설문조사 분석
Ⅳ. 전문가 인터뷰
Ⅴ. 결 론

요 약 : 본 연구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현직 사서들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사서역량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의 주요 영역을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사서역량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문헌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결합한 혼합연구 설계를 적용하였다. 설문 결과, 사서역량 영역에서 가장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콘텐츠 접근 지식이 최상위 역량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프로그램과 서비스 영역의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인터뷰 분석에서는 사서역량이 데이터 분석 및 기술 활용 능력과 이용자 중심의 소통・매개 능력이라는 두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두 역량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 역할 재정립과 사서역량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실증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사서역량, 도서관 역할 변화, 혼합연구, 사서 인식, 이용자 중심성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examine changes in library roles and empirically analyze librarians' perception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s of librarian competencies. Using a mixed-methods design combining literature review, survey research, and expert interviews, the study examined five domains: collections, services, space, cultural programs, and librarian competencies.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librarian competency domain received the highest level of consensus, with communication skills and knowledge of content access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competenci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perceptions of changes in library rol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s of librarian competenci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cultural programs and services. Interview findings indicated that librarian competencies were discussed primarily in relation to technology-related competencies and user-centered communication and mediation competencies. Participants emphasized that these competencies should complement one another in responding to changing library environments. The findings provid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redefining library roles and developing librarian competencies.

KEYWORDS : Librarian Competencies, Library Role Changes, Mixed Methods Research, Librarian Perceptions, User-Centeredness

*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부교수(sulibrary@daelim.ac.kr / ISNI 0000 0004 7919 3473) (제1저자)
**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조교수(secho@daelim.ac.kr / ISNI 0000 0005 1358 5527) (교신저자)
*** 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jiannyang@sewu.ac.kr / ISNI 0000 0004 9302 4975) (공동저자)

• 논문접수: 2026년 5월 14일 • 최초심사: 2026년 5월 30일 • 게재확정: 2026년 6월 10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7(2), 123-151, 2026. http://dx.doi.org/10.16981/kliss.57.2.202606.123

※ Copyright © 2026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역사적으로 도서관은 인류 지식의 총체이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지식정보의 유형과 제공되는 방식은 끊임없이 제거되고 대체되거나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 도서관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미래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19 기간 동안 도서관은 공간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가상 도서관, 메타버스 도서관 등의 기술이 도입되고 시도되는 시기였다. 2024년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에 복귀하면서 도서관 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요구되는 현안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그 활용에 집중되었다. 2024년 생성형 인공지능을 주제로 개최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인재 역량 개발 세미나'는 신청 동시 36초 만에 100명 정원이 마감되어 도서관 사서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가트너(Gartner)의 2023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가트너 IT 심포지엄/엑스포(Gartner IT Symposium/Xpo)'에서 '2024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4)'를 발표했다. 2024년 가트너 10대 기술을 해석해 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AI 기술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2023년의 전략기술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는 것,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기술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에는 AI 거버넌스 플랫폼(AI Governance Platforms)으로 확장하여 AI 신뢰, 위험 및 보안 관리, AI 시스템의 법적, 윤리적, 운영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하는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로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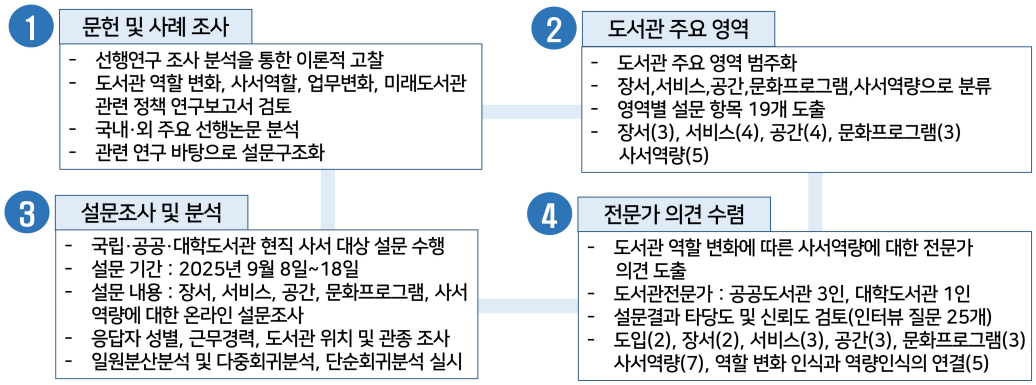
이러한 환경 변화와 미래 예측의 어려움 속에서 사서들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량으로 기술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Spencer와 Spencer(1993)는 역량을 "특정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정의하며, 선천적 자질과 학습・경험을 통해 습득된 지식・기술・태도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미래 정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서의 역량을 재조명하는 것은 이론적・실천적으로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현직 사서들의 인식 조사를 토대로 사서역량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주요 영역을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사서역량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각 영역에서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역할 변화에 대한 현직 사서들의 인식을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과 사서역량 인식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 재정립과 사서역량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실천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도서관의 변화된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서들의 역량 인식연구를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주요 영역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연구 방법과 추진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방법 및 내용

첫째, 변화하는 사회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도서관 업무의 원심력이 되는 주요 업무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도서관 정책 관련 연구보고서와 선행 논문을 살펴보았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주요 영역을 다섯 가지(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사서역량)로 범주화하여 19개 항목의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전국 국립, 공공,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을 통해 총 70부의 유효한 설문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 문항 전체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인식 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서관 관종을 집단변수로 한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집단 간 인식 차이를 검토하였고, 이어 사서역량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을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등 개별 영역의 단순 합산이 아닌 총체적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서역량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무경력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 전체 평균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역할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에 갖는 순수 설명력(ΔR^2)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각 역할 변화 영역의 개별 기여도를 탐색하기 위해 영역별 단순회귀분석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적 수치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현장의 맥락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설문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도서관 역할 변화(Q1～Q14) 및 사서역량(Q15～Q19)의 19개 문항 전반에 걸쳐 현장 전문가의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문헌 분석을 토대로 설문 항목을 구성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순차적 혼합연구 설계를 적용하였다.

Ⅱ. 도서관 역할 변화

도서관법(법률 제21090호, 2025)에서는 도서관이 자료와 서비스를 매개로 이용자와 사서를 연결하는 유기적 체계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에서 도서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자료, 서비스, 사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기본 목적을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법적 정의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고 있었으며,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사서역량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장서 영역에서는 전자자원 구독 확대에 따른 장서 관리 방식의 변화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도서 추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곽우정, 노영희, 2021; 이제환, 2007), 서비스 영역에서는 참고봉사에서 출발하여 주제전문서비스, 디지털 참고서비스,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의 진화가 확인된다(이제환, 2007; Chase, 2024; Janes, 2008). 공간 영역에서는 서가와 열람실 중심의 정적 구조에서 벗어나 창작, 소통,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이 다수의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곽승진 외, 2017; 임정훈 외, 2021; 장윤금, 2014). 문화프로그램 영역에서는 독서·강좌 중심의 협의적 운영에서 이용자의 경험과 도서관

정체성을 연결하는 문화상품 개념으로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곽철완 외,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24; 최상희, 2020), 사서의 직무를 단순 행사 진행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도서관 브랜딩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기획 역량과 마케팅・홍보 능력이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사서역량 영역에서는 기술 습득을 넘어 윤리적 판단력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획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었다(국립중앙도서관, 2024; ALA, 2023; Hu et al., 2022).

이처럼 각 영역의 역할 변화는 독립적으로 사서의 직무를 재정의하는 동시에, 사서역량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촉진하는 상호 연계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도서관법 제3조의 자료・서비스・사서라는 세 가지 기본 범주를 토대로 하되,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공간과 문화프로그램 영역을 추가하여 장서, 공간, 서비스, 문화프로그램, 사서역량의 다섯 가지로 확대・분류하고, 각 영역별 역할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직 사서들이 각 영역의 역할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서역량 인식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도서관 장서

장서는 도서관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핵심 요소로서,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 변화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이지연, 2009) 장서 관련 업무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사서 역할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도서관에서는 인쇄기술 발달과 함께 출판물이 증가하면서 한국목록규칙(KCR)을 내용 규칙으로 채택하였다. 오프셋 인쇄방식으로 카드형 목록을 제공하였던 시기에 필요한 주요 업무 역량은 펜글씨와 등사였을 것이다. 1970~80년대 타자기가 보급되면서 등사에 의한 목록카드 작성은 사라지고, 이후 김정현(1985)의 연구에서는 워드프로세서가 도서관 업무에 적용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도서관 자동화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후 시스템 기반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었다(곽승진, 신재민, 2014; 이제환, 1999). 1990년대 이후 기계가독형목록형식(MARC)으로 목록을 만들면서, KORMARC(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을 표준으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목록 업무의 전산화는 사서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경민(2008)은 도서관 전산화와 인터넷의 확산이 사서 업무를 편리하게 한 반면, 아웃소싱 및 직업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역할을 찾지 못하는 경우 사서의 직업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쇄 자료 중심의 장서 개발에서 전자저널, 전자책,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자원의 비중이 커지고(이제환, 1999), 사서들은 구독 계약, 접근권 확보 등 의 역량이 요구

되었다(박일종, 정진한, 2006). 윤희윤(2007)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 중심의 장서개발에 중점을 두되 디지털 정보자원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신유미와 박옥남(2019)은 '도서선택'에서 '장서개발', '장서관리'로 점차 그 범위와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주장하였다. 2010년대 이후 이정미(2013)는 빅데이터를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 추천 및 자동 도서 점검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곽우정, 노영희, 2020).

카드목록 시대에 사서에게 요구되던 펜글씨와 등사 능력이, 전산 운용 능력으로, 다시 전자자원의 라이선스 협상과 접근권 관리 역량으로 진화해 온 것처럼, AI・빅데이터 시대에는 기술의 조작 능력을 넘어,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신뢰성 판단, 알고리즘 편향성 인식,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 혁신을 반영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도서관의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라는 용어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해석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안내해 주는 '참고봉사(reference service)'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이제환, 2007). 이는 단순한 질의 응답을 넘어 정보의 탐색과 조직, 분석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한 지식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돕는 포괄적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학문 분야의 세분화와 정보매체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참고봉사는 단순한 문헌 안내를 넘어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전문적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Pinfield(2001)는 주제전문사서가 전통적인 자료 관리와 이용자 지원 기능을 넘어 이용자 연계(liaison), 자료 홍보, 전자자료 선정, 정보 활용 교육, 프로젝트 업무 등 다양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은 도서관 서비스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Janes(2008)는 이메일, 실시간 채팅, FAQ 등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 도구의 도입이 전통적인 대면 중심의 참고봉사를 넘어 도서관의 원격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참고서비스(digital reference service)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고아름과 정은경(2011)은 국내 대학도서관 디지털 참고서비스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전환이 아니라 사서의 정보제공 방식과 이용자 소통 전략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며,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도서관 참고기능의 본질적 확장을 시사한다.

이후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도서관 서비스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박태연 외(2018)는 기술혁신이 사서의 직무환경과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미래사서의 새로운 역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곽우정과 노영희

(2021)는 빅데이터 기반 추천, 자연어처리를 활용한 자동 응답, AI 도서 추천 등 지능형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사서의 역할이 정보 제공자에서 기술 기반 서비스의 설계자이자 운영자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반 챗봇 서비스와 관련하여 Chase(2024)는 대학도서관이 최소한의 기술 자원으로도 AI 챗봇을 자체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사례 분석으로 보여주었으며, 강유정(2025)은 AI 챗봇의 지속적 이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신뢰성, 공감성, 의인화 특성 등 서비스 품질 요소를 규명하였다. 두 연구는 AI 챗봇이 도서관 참고서비스의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술적 구현과 함께 이용자 경험 중심의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도서관 서비스는 참고봉사에서 디지털 참고서비스를 거쳐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진화해 왔으며,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량 역시 문헌 안내에서 정보의 분석과 조직 능력으로, 다시 기술 기반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 역량으로 확장되어 왔다. AI가 정보서비스의 일부를 수행하는 현재의 환경에서, 사서는 기술 활용 능력과 함께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전문적 판단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3. 도서관 공간

도서관 공간은 오랫동안 장서 보존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맞춰 서가와 열람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 구조는 자료 접근과 정숙한 학습 환경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공간의 성격도 비교적 고정적이고 규율 중심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는 도서관 공간의 기능을 더 이상 열람과 보존에 한정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도서관은 문화, 창의, 커뮤니티 활동을 아우르는 복합적 공간으로 그 기능과 형태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기능적 전환에 대한 논의는 201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장윤금(2014)은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이 장서 및 열람 중심에서 이용자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조력자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곽승진 외(2017)는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테크, 인포메이션커먼스, 라키비움 등 복합문화공간 요소를 통합하여 이용자 간 교류와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형 도서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원과 김종서(2019)는 공공도서관 열람실이 유연성과 호환성을 갖추어 이용자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탄성 설계'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남규 외(2020)는 2010년 이후 국내외 도서관에서 기능적 구획보다 시각적 개방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윤희진(2021)은 도서관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전이공간 개념을 도출하고, 도시와의 연결성, 심리적 접근성 등 네 가지 기능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공간의 물리적 구조 자체가 이용자의 행동과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간 설계가 단순한 건축적 문제를 넘어 서비스 기획의 영역임을 시사한다.

한편 공간 재구조화 논의는 지역사회 거점으로서의 도서관 역할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임정훈 외(2021)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을 학습, 표현, 공유, 체험 중심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도서관의 건축적 수준과 서비스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재구조화 모형을 제안하였다. 배동식(2022) 역시 공공도서관이 문화, 교육, 교류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손다희와 이남규(2025)는 한국과 일본 공공도서관의 열람공간을 시지각 구조 분석으로 비교하여, 공간의 개방성과 시각적 연결성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도서관 공간은 장서 보존과 열람 중심에서 창작, 소통,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통합한 복합적 공간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공간 구조의 전환은 사서에게 공간을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이용자 요구를 분석하고 공간의 기능과 배치를 능동적으로 기획하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4.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도서관법(법률 제21090호, 2025) 제32조 제2항에 공공도서관의 주요 업무로 '공중의 문화 활동 및 평생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서문화진흥법(법률 제19794호, 2023)은 독서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에서는 ① 도서관·독서 관련 프로그램(독서, 책, 저자 등을 매개로 한 강좌·행사)과 ② 문화프로그램(운동, 예술, 취미, 외국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독서 행위가 직접적인 '주'가 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들도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는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독서라는 행위가 직접적 중심이 되지 않는 활동까지도 독서문화 범주로 분류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곽철완 외(2009)와 최상희(2020)의 연구에서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유형을 내용적 측면의 교육강좌, 독서, 문화, 사회, 생활 등과 형식적 측면, 예술, 취미 문화강좌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가도서관위원회(2024)의 「도서관 인식조사 및 홍보전략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가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참여 유형도 강좌·교육(42%), 독서(28.9%), 행사·공연(19.5%), 전시(9.5%)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경(2024)은 정체성, 독창성, 연상성, 역사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문화상품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소명과 정지연(2024)은 16개의 도서관의 슬로건과 키워드를 도출하여, 특성에 맞는 유형화 및 캐릭터 디자인 전략 방안을 제시하여, 도서관의 이미지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범위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활동, 즉

교육, 강좌, 전시, 서비스, 상품, 경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사서역량

사서역량에 관한 논의는 특정 시점의 직무 기술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의 되어 왔다. 미국도서관협회(ALA)의 「Core Competences of Librarianship(2023)」은 사서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정보기술 응용,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조직관리, 윤리 및 사회정의, 평생 학습 태도' 등의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정의, 형평성, 다양성과 포용성 요소를 역량 체계 안에 통합한 점이 특징이다.

사서역량을 보다 구체화한 연구들도 있다. 박지인과 박진홍(2021)은 데이터 분야 중심의 전문사서 직무와 역량을 데이터, 도서관 운영・서비스, 연구지원, 의사소통・대인관계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역량, 다양성・포용성 인식, 협업 능력 등이 상위 항목으로 나타났다. 박희진 외(2021)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역량과 실제 보유 역량 간의 격차를 분석하였고, 정영미와 이은주(2024)는 사서의 직무수행 전문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사서학습공동체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Hu et al.(2022)는 미국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 중심 기술, 의사소통 및 리더십, 경력 개발 역량 등이 미국도서관협회(2023)의 공식 역량 기준보다 현업에서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영희와 심효정(2023)은 사서의 핵심가치 항목 중 접근, 다양성, 전문성, 서비스, 리터러시, 공익 항목에서 사서들의 동의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사서들에게 디지털 역량 및 정보기술 활용 능력은 모든 연구에서 핵심역량으로 등장하며, 이용자 중심 서비스, 의사소통, 협업 역량과 동등하게 중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사서역량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설문 문항 구성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각 영역별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문항의 대응 관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 기반 설문 문항 구성

분야	주요 영역	관련 연구
장서	인쇄자료 대비 디지털자료 비중 확대	이제환(2007), 윤희윤(2007)
	콘텐츠 저장(서고)장소를 줄이고 창작 및 공유공간을 제공	윤희진(2021), 손다희와 이남규(2025)
	콘텐츠를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접근방법을 확대	이제환(1999), 박일종과 정진한(2006)
서비스	데이터, 로봇, AI등과 같은 최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확대	박태연 외(2018), 곽우정과 노영희(2021), Chase(2024)
	이용자의 지식격차를 줄이는 서비스 제공	Pinfield(2001), 이제환(2007)
	추천도서 및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	Janes(2008), 곽우정과 노영희(2020)
	장서에 대한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고아름과 정은경(2011), 강유정(2025)

분야	주요 영역	관련 연구
공간	학습, 미팅룸, 개별룸 등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확대 제공	임정훈 외(2021)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제공	윤희진(2021), 손다희와 이남규(2025)
	복합적 공간활용 및 직관적 시설 배치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	장윤금(2014), 곽승진 외(2017)
	디지털콘텐츠, 북카페 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도서관을 제공	배동식(2022)
문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협업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제공	곽철완 외(2009), 최상희(2020)
	비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요소 확대	국가도서관위원회(2024)
	도서관의 고유정체성이 담긴 물리적인 문화상품을 개발	김소명과 정지연(2024), 김진경(2024)
사서 역량	장서구성 및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방법 및 지식	박일종과 정진한(2006), 이지연(2009)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박태연 외(2018), 박지인과 박지홍(2021)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상상력, 창조력, 개방성	박희진 외(2021)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고 동료와 협업하는 의사소통 능력	Hu et al.(2022), 정영미와 이은주(2024)
	이용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	노영희와 심효정(2023)

Ⅲ. 설문조사 분석

1.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도서관 역할 변화에 따른 사서역량에 대한 현직 사서들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한 2025년 사서한마당 포럼에 참여한 사서를 대상으로 강의 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간은 2025년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총 70명의 유효 응답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도서관 변화 및 역량 개발에 관심이 높은 자발적 참여자로 구성된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이 점에서 연구 결과는 탐색적 성격을 지닌다.

설문 문항은 2장의 문헌 분석에서 도출된 도서관 역할 변화의 주요 영역을 토대로, 장서(Q1~Q3), 서비스(Q4~Q7), 공간(Q8~Q11), 문화프로그램(Q12~Q14), 사서역량(Q15~Q19)의 다섯 가지 영역,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아울러 응답자의 성별, 연령, 근무경력, 도서관 위치, 도서관 관종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함께 조사하였다.

다섯 가지 영역은 설문 구성 단계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범주화되었으나, 분석 단계에서는 역할이 구분된다. 장서·서비스·공간·문화프로그램의 네 영역(Q1~Q14)은 도서관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의 변화 방향을 측정하는 독립변수군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서역량 영역(Q15~Q19)은 이러한 역할 변화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박태연 외, 2018; Hu et al., 2022)에서 도서관 역할 변화가 사서역량 인식에 선행한다는 이론적 논거에 근거한 것으로, 두 집합이 동일 위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를 설명하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섯 영역은 설문 문항

구성 시에는 병렬적으로 제시되지만, 회귀분석 단계에서는 네 개 영역(장서・서비스・공간・문화프로그램)이 독립변수(원인)로, 사서역량 인식이 종속변수(결과)로 기능하는 위계적 구조를 취한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특성 파악을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19개 문항 전체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통해 인식 수준을 확인하였다. 셋째, 도서관 관종을 집단변수로 한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집단 간 인식 차이를 검토하였다. 넷째,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영역의 개별 기여도를 탐색하기 위한 영역별 단순회귀분석을 보완적으로 진행하였다.

2. 응답자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가 56명(82.4%)으로 남성 12명(17.6%)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2〉 응답자 일반 특성 (N=70)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비고
성별	여	56	82.4	결측 2건
	남	12	17.6	
연령	20대	9	14.8	평균 42.1세(SD=9.45) 결측 9건
	30대	18	29.5	
	40대	19	31.1	
	50대	15	24.6	
근무경력	1년 이하	1	1.8	평균 15.5년(SD=9.45) 결측 13건
	2-3년	8	14.0	
	4-5년	5	8.8	
	6-10년	7	12.3	
	11-15년	7	12.3	
	16-20년	13	22.8	
	21-30년	15	26.3	
	31년 이상	1	1.8	
도서관 관종	공공도서관	55	82.1	결측 3건
	대학도서관	8	11.9	
	국립도서관 계열	4	6.0	
도서관 위치	서울	26	38.8	결측 3건
	경기	11	16.4	
	기타 지역	30	44.8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9명(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8명(29.5%), 50대 15명(24.6%), 20대 9명(14.8%)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2.1세(SD=9.45)이며, 연령 결측은 9건으로 이는 자유기입식 응답 방식에서 일부 응답자의 기재 생략에 기인한다. 근무 경력은 평균 15.5년

(SD=9.45)이며, 경력 결측 13건 역시 동일한 사유로 발생하였다. 두 항목의 결측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아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5년 이하 14명(24.6%)부터 21년 이상 16명(28.1%)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여, 초기 경력자부터 장기 근속자까지 폭넓은 경력 수준의 응답자가 포함되었다. 도서관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이 55명(82.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대학도서관 8명(11.9%), 국립도서관 계열 4명(6.0%)이 포함되었다. 도서관 위치별로는 서울 26명(38.8%), 경기 11명(16.4%), 기타 지역 30명(44.8%)으로, 수도권 비중이 높으나 지방 소재 도서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3. 역할 변화 인식 수준

가.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19개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평균값이 3.0 이상으로 나타나, 도서관 역할 변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영역별 평균을 비교하면, 사서역량 영역(M=4.41)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M=4.14), 문화프로그램(M=4.05) 순이었다. 반면 장서(M=3.40)와 공간(M=3.54)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여, 영역 간 인식 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사서역량 영역(Q15~Q19)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Q18(이용자요구 파악 및 의사소통 능력)이 전체 문항 중 최고 평균(M=4.551, SD=0.582)을 기록하였으며, Q15(콘텐츠 접근 지식, M=4.471), Q17(상상력, 창조력, 개방성, M=4.357) 순이었다. 빈도분석에서도 Q18의 5점 응답 비율은 58.6%, Q15는 55.7%에 달하였다. 이들 문항의 표준편차가 0.58~0.72로 낮아, 사서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 영역(Q4~Q7)도 모두 평균 4.0 이상이었으며, Q10(이용자 편의성 향상, M=4.243)과 Q13(비이용자 유입 확대, M=4.229)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Q2(서고 축소 및 창작 공유공간 제공, M=2.986)는 전체 문항 중 유일하게 평균 3.0 미만이었으며, Q1(디지털자료 비중 확대, M=3.114), Q9(서고공간 축소, M=3.100), Q8(다양한 공간 확대, M=3.386), Q11(소규모 도서관, M=3.414)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과 높은 표준편차(1.17~1.24)를 보였다. Q2는 1~2점 응답 합계가 38.6%에 달하여, 현장에서 물리적 서고 축소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간 영역 내에서의 문항 간 차이가 주목할 만하다. Q10(M=4.243, SD=0.647)은 높은 평균과 낮은 표준편차를 보인 반면, Q9(M=3.100, SD=1.169)과 Q11(M=3.414, SD=1.210)은 낮은 평균과 높은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이는 이용자 편의성 향상이라는 총론적 방향에는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서고공간 축소나 소규모 도서관 운영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N=70, 5점 리커트 척도)

영역	문항	문항 내용	N	평균	SD
장서	Q1	인쇄자료 대비 디지털자료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70	3.114	1.198
	Q2	콘텐츠 저장(서고) 장소를 줄이고 창작 및 공유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70	2.986	1.173
	Q3	콘텐츠를 장벽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접근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70	4.114	0.956
서비스	Q4	데이터, 로봇, AI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70	4.029	0.932
	Q5	다양한 배경의 이용자 지식격차를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0	4.157	0.810
	Q6	추천도서 및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0	4.200	0.791
	Q7	소장 장서에 대한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0	4.186	0.822
공간	Q8	학습, 미팅룸, 개별룸 등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확대 제공해야 한다	70	3.386	1.243
	Q9	물리적 서고공간을 줄이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한다	70	3.100	1.169
	Q10	복합적 공간활용 및 직관적 시설배치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해야 한다	70	4.243	0.647
	Q11	디지털콘텐츠, 북카페 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도서관을 제공해야 한다	70	3.414	1.210
문화 프로그램	Q12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협업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70	3.871	0.916
	Q13	비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요소를 확대해야 한다	70	4.229	0.854
	Q14	도서관의 고유정체성이 담긴 물리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70	4.043	1.055
사서 역량	Q15	장서구성 및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방법 및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70	4.471	0.675
	Q16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70	4.329	0.717
	Q17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상상력, 창조력,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70	4.357	0.638
	Q18	이용자요구를 파악하고 동료와 협업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69	4.551	0.582
	Q19	이용자들과 지역사회, 학교 등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	70	4.343	0.679

*Q18은 결측 1건으로 N=69를 기준으로 분석함

나. 집단별 평균 비교(ANOVA)

도서관 관종에 따른 인식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도서관 관종(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을 집단변수로 한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9개 문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p>.05$). Q1($F=2.421$, $p=.058$)이 유의수준에 근접하였으며, 공공도서관($M=2.891$)과 대학도서관($M=4.000$) 사이에 평균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도서관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이 관종의 특수적 요인보다는 현장 전반에 걸친 공통적 기반 위에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국립도서관 계열의 사례수가 4명(6.0%), 대학도서관 8명(11.9%)으로 관종별 표본 크기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특히 소규모 집단에서 통계적 검정력이 낮아 유의차 부재를 집단 간 공통 인식으로 단정하기 어렵기에 향후 균형 잡힌 표본 구성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4. 사서역량 인식의 영향 요인

가. 분석 설계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사서역량 인식 문항(Q15~Q19)의 합산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내적 일관성 검증 결과 Cronbach's α=.880으로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는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의 4개 영역(장서・서비스・공간・문화프로그램)을 포괄하는 Q1~Q14 합산 평균(역할 변화 인식 전체)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박태연 외(2018)가 기술혁신에 따른 도서관 역할 변화가 사서의 핵심 직무 재정립을 촉구한다고 논증하였고, Hu et al.(2022) 역시 현장 사서가 인식하는 역할 변화가 역량 요구 인식과 직결됨을 보고한 바, 역할 변화 인식이 높을수록 새로운 역량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할 것이라는 이론적 논거에 근거한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2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에서는 근무경력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전체 평균)을 추가 투입하여 역할 변화 인식의 순수 설명력(ΔR^2)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각 역할 변화 영역이 사서역량 인식에 미치는 독립적 기여도를 탐색하기 위해 4개 영역 각각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장서 변화 인식(Q1~Q3)의 경우 Cronbach's α=.535로 다른 척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서 영역이 인쇄자료・디지털자료 비중, 오픈액세스, 콘텐츠 접근성 등 다양한 하위 개념을 포괄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영역의 문항 수가 3개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만 해당 영역의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신뢰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하위 개념 간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 척도 신뢰도(Cronbach's α)

척도	구성 문항	문항 수	Cronbach's α
사서역량 인식	Q15~Q19	5	.880
장서 변화 인식	Q1~Q3	3	.535
서비스 변화 인식	Q4~Q7	4	.601
공간 변화 인식	Q8~Q11	4	.687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	Q12~Q14	3	.694

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행렬은 〈표 5〉와 같다(결측 제외 N=66). 종속변수인 사서역량 인식의 평균은 4.40(SD=0.55)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독립변수인 역할 변화 인식(전체)의 평균은 3.81(SD=0.52)이었다. 영역별로는 서비스 변화 인식(M=4.13)과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M=4.03)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서(M=3.44)와 공간(M=3.59) 변화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상관분석 결과, 사서역량 인식은 역할 변화 인식(전체)(r=.60, p<.001),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r=.56, p<.001), 서비스 변화 인식(r=.54, p<.001), 공간 변화 인식(r=.38, p<.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장서 변화 인식과도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다(r=.28, p<.05).

〈표 5〉 기술통계 및 상관행렬 (N=66)

변수	M	SD	(1)	(2)	(3)	(4)	(5)	(6)
(1) 사서역량 인식	4.40	0.55	–					
(2) 역할 변화 인식(전체)	3.81	0.52	.60***	–				
(3) 장서 변화 인식	3.44	0.81	.28*	.70***	–			
(4) 서비스 변화 인식	4.13	0.57	.54***	.66***	.34**	–		
(5) 공간 변화 인식	3.59	0.78	.38**	.80***	.48***	.23	–	
(6)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	4.03	0.74	.56***	.69***	.16	.44***	.44***	–

* p<.05 ** p<.01 *** p<.001

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근무경력만을 투입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R^2=.047, F=3.143, p=.081), 근무경력의 회귀계수는 정적 방향을 나타내었다(B=0.012, β=.216, p=.081). 2단계에서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전체 평균)을 추가 투입한 결과, 모형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R^2=.368, Adj. R^2=.348, F=18.339, p<.001), 역할 변화 인식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은 ΔR^2=.321(ΔF=32.012, p<.001)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0.610, β=.576, p<.001). 이는 도서관 역할 전반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서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근무경력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B=0.006, β=.115, p=.263), 2단계에서 역할 변화 인식이 투입되면서 그 효과가 감소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VIF=3.64로 기준값(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표 6〉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66)

변수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상수	4.213	0.125	–	1.979	0.408	–
근무경력(년)	0.012	0.007	.216†	0.006	0.006	.115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전체)				0.610	0.108	.576***
R^2	.047			.368		
Adj. R^2	.032			.348		
F	3.143			18.339***		
ΔR^2	–			.321***		
ΔF(1, 63)	–			32.012***		
VIF 범위	–			3.64		

† p<.10 * p<.05 ** p<.01 *** p<.001

※ VIF 범위: 3.64 (다중공선성 기준 VIF<10 충족)

라. 영역별 단순회귀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도서관 역할 변화 4개 영역이 사서역량 인식에 미치는 개별 영향력을 탐색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분석 결과, 4개 영역 모두 사서역량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가장 높은 영역은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R^2=.312, β=.559, p<.001)이었으며, 서비스 변화 인식(R^2=.287, β=.536, p<.001)이 그 뒤를 이었다. 공간 변화 인식(R^2=.141, β=.376, p<.01)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장서 변화 인식(R^2=.076, β=.276, p<.05)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게 가진 사서일수록, 그에 부응하는 사서역량의 필요성 인식도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서 영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설명력은 인쇄자료 중심의 장서 업무가 전통적 사서 역할로 이미 내재화되어 있어 역량 인식의 변별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낮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역할 변화 영역별 사서역량 인식에 대한 단순회귀 (N=66)

영역	M	SD	r	B	β	R^2	p
장서 변화 인식	3.44	0.81	.276*	.188	.276	.076	.025*
서비스 변화 인식	4.13	0.57	.536***	.512	.536	.287	<.001***
공간 변화 인식	3.59	0.78	.376**	.264	.376	.141	.002**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	4.03	0.74	.559***	.412	.559	.312	<.001***

* p<.05 ** p<.01 *** p<.001

Ⅳ. 전문가 인터뷰

1. 인터뷰 설계 및 참여자 특성

본 연구의 인터뷰는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적 수치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현장의 맥락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는 공공도서관 사서 3명과 대학도서관 사서 1명으로 구성된 총 4명이었다. 전문가 인터뷰 참여자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평균 18년 이상 근무한 현직 사서로서, 업무 경험의 다양성과 관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표본 규모의 적절성은 참여자 수 자체보다 표본이 보유한 정보의 질과 밀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정보력(information power) 개념(Malterud et al., 2016)과 주제적 범위가 파악되는 코드 포화(code saturation)에 도달하는 데 핵심 인터뷰 수가 중요하다는

논의(Hennink et al., 2017)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의 전문가 인터뷰는 설문조사를 보완하는 혼합 연구 설계 내 질적 방법으로 활용되며, 사서라는 동질적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의 해석과 맥락화에 초점을 두는 집중된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소규모 표본으로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뷰는 2026년 3월 중 개별 면담 및 서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가 자료를 반복 검토하며 코드를 도출하고, 관련 코드를 범주화하여 주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따랐다. 인터뷰 질문지는 크게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된 반구조화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표 8〉 참조)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표 8〉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구성

구분	핵심 내용	주요 질문	목적
1. 업무 및 현장 변화	현재 담당 업무, 보람, 최근 변화	도입부(장서・서비스・공간・문화프로그램・사서역량)	현장 맥락 파악 및 라포 형성
2.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	각 영역별 현장 체감 및 구체적 경험(Q1~Q14 대응)	역할 변화에 대한 현장 체감도 파악
3. 사서 핵심역량 인식	의사소통, 콘텐츠 접근 지식, 데이터 분석, 창조력・개방성, 이타심	설문 결과(Q15~Q19) 검토 및 현장 적합성 확인	역량 우선순위 및 현장 적합성 확인
4. 역할 변화와 역량 인식의 연결 구조	역량 변화 촉발 요인	변화와 역량 인식 간 연결 구조 심층 탐색	역할 변화와 역량 인식 간 연결 구조 탐색

〈표 9〉 전문가 인터뷰 참여자 일반 특성

구분	도서관 유형	직위	근무경력	연령대	업무
A	공공도서관	팀장	10년	30대	운영업무 및 수서팀 총괄
B	공공도서관	임기제 공무원	17년	40대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미디어창작실 총괄 운영
C	공공도서관	관장	20년	50대	공공도서관 운영 업무 총괄
D	대학도서관	팀장	25년	50대	대학도서관 운영 총괄

2.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요 변화

인터뷰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도서관의 가장 큰 변화는 기술 환경의 전환과 이용자 요구의 다양화로 수렴되었다. 사서 A는 도서관 현장에서 AI 등 최신기술 적용과 마음 돌봄・인간 내면 중시라는 두 방향의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통한 사서 재교육 요구가 "개별 사서에게 역량 신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서 B는 주요 이용자층인 40~60대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면서 "다수가 참여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파악한 깊이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졌음을 강조하였다. 사서 C는 비대면 회원가입, 스마트도서관, 전자책 구독 확대 등 "공간적 제약을 두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업무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사서 D는 생성형 AI 사용 보편화

를 가장 큰 변화로 꼽으며, 이용자들이 학술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언급하였다.

3. 역할 변화에 대한 현장 인식

장서에 대해 참여자 전원은 디지털 콘텐츠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면서도 인쇄자료와 디지털자료가 상호 대체가 아닌 병존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사서 B는 분야별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전자자료와 인쇄자료의 구입을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하였으며, 사서 C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깊이 있는 독서경험이 더욱 필요하며 종이책은 더욱 중요한 매체"임을 강조하였다. 오픈액세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장서 변화와 맞물려 서비스 영역에서도 기술 도입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AI 기반 서비스 도입 경험은 4인 모두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방향은 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하였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독서 흥미 유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맞춤형 큐레이션에 기술을 활용하였고, 사서 D는 연구동향파악 및 학술 정보 자동화 등 연구지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맞춤형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서 B와 D는 단순 연령·성별 기반 추천의 한계를 지적하며 라이프스타일, 감정 상태, 관심 분야 등 보다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도서 추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성향과 이용행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사서 C는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화 큐레이션이 "독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간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사서 A와 B는 개방형 공간 전환과 미디어 창작공간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반면, 사서 C와 D는 "이용자들은 소통이나 창작의 공간보다는 책을 읽거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하였다. 서고 축소에 대해 사서 B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사서 D는 대학도서관의 특성상 "보존 서고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공간 전환에 대한 인식 편차는 설문조사에서 Q2(서고 축소 및 창작·공유공간 제공)가 전체 문항 중 유일하게 평균 3점 미만(M=2.986)을 기록한 결과와 일치한다.

문화프로그램 영역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들(A, B, C)은 지역사회 거점 역할의 필요성에 공통으로 공감하였다. 사서 A는 "도서관은 더 이상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하기 어렵다"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였고, 사서 C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세대교류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비이용자 유입 전략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A), 로컬 라이프스타일 연계 프로그램-비건푸드 상점과 연계한 유기농 농산물로 다과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B), 아웃리치 및 도서관 축제(C), SNS 숏폼 콘텐츠와 생애최초대출 이벤트(D) 등 기관별로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4. 사서 핵심역량 인식

핵심역량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공통된 방향성은 '이용자 중심성'으로 수렴되었다. 이용자의 인식 분석(A), 이용자의 정보 요구 충족(D), 이용자와의 소통과 매개(B, C)를 각각 강조하면서, 사서의 역량이 궁극적으로 이용자를 이해하고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사서 A와 D는 AI와 같은 기술을 목적 자체가 아닌 서비스 혁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구로 강조하였으며, 사서 B와 C는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인간적 소통과 매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역설하였다. 종합하면, 사서역량은 데이터 분석・AI 활용 등 기술 기반 역량과 이용자 소통・매개 등 인간 중심 역량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두 역량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사서직의 전문성이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먼저 역량의 기반으로서 참여자 모두는 의사소통 능력과 콘텐츠 접근 지식이 중요한 역량이라는 설문 결과(Q18: M=4.551, Q15: M=4.471)에 동의하였다. 특히 이 두 역량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동적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서들은 의사소통의 채널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콘텐츠 접근 지식 역시 자기주도적 학습과 공유를 통해 끊임없이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서 B는 소통 역량이 실질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 차원에서 다양한 소통 채널과 참여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설문조사에서 Q17(상상력・창조력・개방성, M=4.357)과 Q19(이타적 마음, M=4.343)의 결과에 대해 인터뷰에서는 이 두 역량의 현장 적합성과 구체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창의성과 관련하여 사서 A와 D는 사서의 개방적 태도가 없으면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방성을 상상력과 창조력의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 사서 B는 '설득력'을 별도의 핵심역량으로 추가 제안하면서, 아무리 창의적인 서비스를 구상하더라도 조직 내・외부의 의사결정권자와 이용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현실적 경험을 반영하였다. 이는 사서역량 체계를 설계할 때 창의성과 같은 자질뿐 아니라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조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적・관계적 역량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타심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이타적인 마음이 단순한 감정적 덕목이 아닌 수서・장서관리・서비스 기획・지역사회 소통 등 사서의 일상적 업무 판단과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량임을 주장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논의점은 사서 B가 제시한 '근본이즘' 개념이다. 사서 B는 이타적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막연한 봉사 정신에 머물 경우 사서 전문직의 정체성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장서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의 외주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사서가 대체 불가능한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타심보다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직업적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참여자들은 이용자

이용패턴 분석, 시민 대상 서비스 발굴, 이용자가 원하는 가치 제공 등 데이터 분석 역량을 이용자 서비스와 직결된 실천적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생성형 AI의 보편화로 데이터 분석의 기술적 장벽이 낮아진 현시점에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며 서비스 기획으로 연결하는 분석적 사고력과 AI 도구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실용적 역량 함양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서 B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량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시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하기 전부터 이용을 마친 후까지 다양한 고민과 활동을 이어가는 사서가 참여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며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량을 갖출 때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역할 변화와 역량 인식의 연결 구조

설문조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도서관 역할 변화 인식 전체는 사서역량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β=.576, p<.001), 역할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 분산의 32.1%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단순회귀 결과에서는 문화프로그램 변화 인식(R^2=.312)과 서비스 변화 인식(R^2=.287)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공간 변화 인식(R^2=.141)과 장서 변화 인식(R^2=.076)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뷰는 이러한 통계적 관계의 이면에 놓인 맥락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는 서비스·문화프로그램 영역에서 일관되게 수렴하는 반면, 공간과 장서 영역에서는 차이가 관찰된다. 공간 변화 인식의 낮은 설명력(R^2=.141)은 역량 인식의 부재가 아니라 장서 보존과 실제 이용자 요구를 우선시하는 현장의 신중한 판단을 반영한 것이며, 장서 영역의 낮은 설명력(R^2=.076)은 장서 업무가 이미 사서의 전통적 역할로 내재화되어 변별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인터뷰는 설문 수치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장 맥락을 실질적으로 보완하였다.

문화프로그램 및 서비스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는 것은 인터뷰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용자 요구의 다양화와 기술 환경의 전환이 사서의 역량 인식 변화를 촉발하는 핵심 동인이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하였다. 사서 A는 사서 역량의 변화를 가장 강하게 촉발하는 요인으로 '서비스적 요소'를 꼽으며, 정보서비스와 열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사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서 B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사서역량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를 '사서의 경험성'으로 규정하며, 이용자의 인식과 경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서가 먼저 다양한 경험을 선행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핵심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사서 D 역시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정보서비스에 접목하여 이용자의 정보 탐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서의

핵심 역할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서비스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를 뒷받침할 역량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은 서비스 변화 인식이 사서역량 인식에 대해 두 번째로 높은 설명력(R^2=.287)을 보인 설문 결과와 부합한다.

문화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거점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역량 요구로 이어지는 구조가 두드러졌다. 공공도서관 사서들(A, B, C)은 도서관이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비이용자를 유입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퍼실리테이션, 마케팅, 지역사회 협력 등 보다 확장된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을 현장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사서 역량 필요성 인식도 함께 높아진다는 단순회귀 결과(R^2=.312)의 현장적 근거가 된다.

한편 공간 변화 인식은 참여자 간 편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영역으로, 이러한 경향은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서고를 축소하고 창작・공유공간을 제공하는 문항(Q2)이 전체 문항 중 유일하게 평균 3점 미만(M=2.986)을 기록하였으며, 높은 응답 분산(SD=1.173)은 현장 사서들 사이에서 공간의 역할 변화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실재함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러한 낮은 합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연구나 정책에서 제안하는 공간 변화의 방향이 실제 이용자 요구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현장의 판단이다. 사서 C와 D는 이용자들이 소통・창작 공간보다 독서・학습 공간의 확충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장서 보존이라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간 재구성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장서 보존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공간 변화에 대한 낮은 합의는 변화의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지켜야 할 본질적 가치와 새롭게 수용해야 할 기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나아가 공간 변화 인식이 역량 인식으로 연결되는 방식 역시 단일하지 않으며, 각 도서관의 성격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는 공간 변화 인식의 설명력(R^2=.141)이 문화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설문 결과와도 상통한다.

종합하면, 도서관 역할 변화와 사서역량 인식의 연결은 획일적이거나 선형적이지 않다. 서비스와 문화프로그램 영역에서의 변화 인식은 이용자 중심성을 매개로 역량 인식 변화를 강하게 촉발하는 반면, 공간 영역에서의 인식은 도서관 유형과 현장 맥락에 따라 다층적으로 작동한다. 이는 사서역량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기보다 각 도서관이 처한 환경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성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하며, 동시에 설문의 통계적 수치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장의 다양한 맥락을 인터뷰가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서관의 역할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장서, 서비스, 공간, 문화프로그램, 사서역량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이후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결합한 혼합연구 설계를 통해 사서역량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 전 영역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변화의 수용 정도와 방향성에 있어 영역별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역량은 데이터 분석・AI 활용 등 기술 기반 역량과 이용자 소통・매개 등 인간 중심 역량의 이중 구조로 수렴됨이 확인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사서역량 영역(M=4.41)이 가장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의사소통 능력(M=4.55)과 콘텐츠 접근 지식(M=4.47)이 최상위 역량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분석에서도 사서 A와 D는 AI를 목적 자체가 아닌 서비스 혁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구로 강조하였으며, 사서 B와 C는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인간적 소통과 매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역설하였다. 두 역량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사서 전문성이 유지・강화된다는 점에서, 어느 한 축으로 수렴되지 않는 균형적 역량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설득력, 퍼실리테이터 역량, 마케팅 능력 등 기존 역량 체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실천적・관계적 역량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서역량 논의가 보다 광의의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도서관 서비스는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나,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닌 이용자 경험 중심의 서비스 설계가 핵심임이 확인되었다. AI 기반 서비스 도입 경험은 전 참여자에게서 확인되었으나 그 방향은 기관 유형에 따라 분화되었으며, 맞춤형 서비스에 있어서도 단순 연령・성별 기반 추천의 한계를 넘어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이용 행태에 기반한 정밀한 서비스 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셋째, 공간 영역은 변화 방향에 대한 합의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서고 축소 및 창작・공유공간 제공 문항(Q2)이 전체 문항 중 유일하게 평균 3점 미만(M=2.986)을 기록하였으며, 공간 변화 인식은 사서역량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나 설명력(R^2=.141)은 문화프로그램(R^2=.312) 및 서비스(R^2=.287)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서가 공간 전환을 단순한 물리적 재구성으로 수용하기보다, 도서관의 본질적 가치와 실제 이용자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양자 사이의 균형을 판단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문화프로그램 영역에서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지역사회 거점 역할의 필요성에 공통으로 공감하였으며, 비이용자 유입을 위한 다양한 맥락적 전략이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협의적 개념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이나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을 넘어 도서관이 기획・제공하는 문화적 활동과 콘텐츠를 광의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서・강좌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시, 체험 등 이용자의 다양한 경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의 문화적 역할 확장과 지역사회 참여 기반 강화와 관련된 변화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단계적으로 결합한 혼합연구 설계를 통해 도서관 역할 변화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인식을 정량·정성의 두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설문조사의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장의 맥락과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사서역량에 관한 논의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실천적 기여가 있다. 다만 설문 응답자의 관종별 분포와 인터뷰 참여자 규모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무작위표집을 통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균형 잡힌 표본 구성과 이용자 관점을 통합한 후속 연구를 통해 사서역량 모델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유정 (2025). 공공도서관 AI 챗봇의 의인화와 서비스 품질이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1), 517-545. https://doi.org/10.4275/KSLIS.2025.59.1.517

고아름, 정은경 (2011). 대학도서관 디지털 참고정보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2(2), 23-41. https://doi.org/10.1633/jim.2011.42.2.023

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공간 구성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7-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곽승진, 신재민 (2014). 도서관 정보시스템 개발 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5(4), 499-518. https://doi.org/10.16881/jss.2014.10.25.4.499

곽우정, 노영희 (2020). 도서관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도서관 관계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137-16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137

곽우정, 노영희 (2021). 도서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1), 155-178. https://doi.org/10.16981/kliss.52.1.202103.155

곽철완, 안인자, 김호연, 박미영 (2009).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매뉴얼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197-208.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1.197

김소명, 정지연 (2024).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공공도서관 캐릭터 디자인 개발 전략과 역할: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16개를 중심으로.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79, 297-307. https://doi.org/10.18555/kicpd.2024.79.024

김정현 (1985). 도서관업무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의 적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2, 199-232.

김진경 (2024). K-디자인에 기반한 아이덴티티 전략 및 문화상품 개발.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76, 51-60. https://doi.org/10.18555/kicpd.2024.76.005

노영희, 심효정 (2023). 사서의 핵심가치 제안과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2), 123-150.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2.123

도서관법, 법률 제21090호.

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제19794호.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도서관 인식조사 및 홍보전략 연구 (12-1371902-000018-01).

박일종, 정진한 (2006). 국내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73-95.

박지인, 박지홍 (2021). 데이터사서의 직무와 역량에 관한 연구: 미국 구인광고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3), 145-16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3.145

박태연, 한희정, 오효정, 양동민 (2018). 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 사서의 핵심업무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327-356. https://doi.org/10.16981/kliss.49.2.201806.327

박희진, 김진묵, 차성종 (2021). 공공도서관 사서의 공통역량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1), 335-36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1.32.1.335

배동식 (2022).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3), 305-314. https://doi.org/10.35216/kisd.2022.17.3.305

손다희, 이남규 (2025). 공공도서관 열람공간 구성 변화와 이용자 시지각 특성에 관한 연구: 2015년 이후 한국·일본 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5), 345-356. https://doi.org/10.35216/kisd.2025.20.5.345

신유미, 박옥남 (2019). 장서개발관리 분야 최근 연구동향 분석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6(2), 105-131. https://doi.org/10.3743/kosim.2019.36.2.105

윤희윤 (2007). 디지털 장서개발의 방법과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79-99. https://doi.org/10.16981/kliss.38.2.200706.79

윤희진 (2021). 도서관 전이공간의 공간 특성 및 기능.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지, 21(6), 95-100. https://doi.org/10.12813/kieae.2021.21.6.095

이경민 (2008).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157-174. https://doi.org/10.14699/kbiblia.2008.19.1.157

이남규, 이준수, 윤성규 (2020). 공공도서관 열람실의 시각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2010년 전후 건립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69, 29-38.

이원, 김종서 (2019).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공간 탄성변화에 관한 연구: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구학회지, 30(2), 143-150. https://doi.org/10.22873/kofuso.2019.30.2.143

이정미 (2013). 빅데이터의 이해와 도서관 정보서비스에의 활용.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53-7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4.053

이제환 (1999). 대학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의 품질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1), 1-29.

이제환 (2007). 한국 문헌정보학에서 참고봉사와 정보봉사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299-323. https://doi.org/10.16981/kliss.38.4.200712.299

이지연 (2009).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247-267.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3.247

임정훈, 오형석, 이병기 (2021). 충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공간혁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4), 103-126. https://doi.org/10.16981/kliss.52.4.202112.103

장윤금 (2014).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변화 및 평가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4), 229-248.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229

정영미, 이은주 (2024). 사서학습공동체 도입 가능성 탐색 및 운영 모델 제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1), 69-97. http://dx.doi.org/10.16981/kliss.55.1.202403.69

최상희 (2020). 공공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유형 분석 연구: 미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351-374. http://dx.doi.org/10.16981/kliss.51.4.202012.35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3). ALA Core Competences of Librarianship. Available: https://www.ala.org/educationcareers/careers/corecomp/corecompetences

Chase, M. (2024). Academic libraries can develop AI chatbots for virtual reference services with minimal technical knowledge and limited resources. Evidence Based Library & Information Practice, 19(2), 136-138. https://doi.org/10.18438/eblip30523

Hennink, M. M., Kaiser, B. N., & Marconi, V. C. (2017). Code saturation versus meaning saturation: How many interviews are enoug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7(4), 591-608. https://doi.org/10.1177/1049732316665344

Hu, Y., Ocepek, M. G., Downie, J. S., & Barker, L. (2022). Listen to librarians: Highlighted core competencies for librarianship from the perspectives of working libraria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83(6), 994-1016. https://doi.org/10.5860/crl.83.6.994

Janes, J. (2008). Virtual reference services: An informal history (and possible future).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4(2), 8-10. https://doi.org/10.1002/bult.2008.1720340204

Malterud, K., Siersma, V. D., & Guassora, A. D. (2016). Sample size in qualitative interview

studies: Guided by information power.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6(13), 1753-1760. https://doi.org/10.1177/1049732315617444

Pinfield, S. (2001). The changing role of subject librarian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33(1), 32-38. https://doi.org/10.1177/096100060103300104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Wiley.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 Dong Sig (2022).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public librarie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social role: Focused on the public library in Daegu.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7(3), 305-314. https://doi.org/10.35216/kisd.2022.17.3.305

Chang, Yunkeum (2014). A study of the changes in university library space and their assessment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229-248.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229

Choi, Sang-Hee (2020). Analysis of public library programs: U.S. public libraries' practi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351-374. http://dx.doi.org/10.16981/kliss.51.4.202012.351

Jung, Young-Mi & Lee, Eun-Ju (2024). Suggesting an operating model and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a librarian learning commun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1), 69-97. http://dx.doi.org/10.16981/kliss.55.1.202403.69

Kang, Yu Jeong (2025). The influence of anthropomorphism and service quality of public library AI chatbot on continuous use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9(1), 517-545. https://doi.org/10.4275/KSLIS.2025.59.1.517

Kim, Jin-Kyung (2024). Development of identity strategies and cultural products based on K-design. Journal of Cultural Product & Design, 76, 51-60. https://doi.org/10.18555/kicpd.2024.76.005

Kim, Jung-hyun (1985). An application of the word processor in library wor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2, 199-232.

Kim, So-Myung & Jung, Je Yon (2024).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and role of public library character design based on text mining: Focusing on 16 librarie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Cultural Product & Design, 79, 297-307. https://doi.org/10.18555/kicpd.2024.79.024

Ko, Ah-Reum & Chung, Eun-Kyung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reference service guidelines for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42(2), 23-41. https://doi.org/10.1633/jim.2011.42.2.023

Kwak, Chul-Wan, Ahn, In-Ja, Kim, Ho-Yeon, & Park, Mi-Young (2009). A study of the model and program manual of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197-208.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1.197

Kwak, Seung-Jin & Shin, Jae-Min (2014). Study on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library information system.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5(4), 499-518. https://doi.org/10.16881/jss.2014.10.25.4.499

Kwak, Seung-Jin, Noh, Younghee, & Shin, Jae-Min (2017).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of library as a multicultural institu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7-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Kwak, Woojung & Noh, Younghee (2020). A study on user-library relationship with the library curation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137-16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137

Kwak, Woojung & Noh, Younghee (2021).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he library's AI service and the service provision pl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1), 155-178. https://doi.org/10.16981/kliss.52.1.202103.155

Lee, Jae-Whoan (1999). Quality evaluation of academic library automation system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0(1), 1-29.

Lee, Jae-Whoan (2007). Reference services and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s LIS fiel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299-323. https://doi.org/10.16981/kliss.38.4.200712.299

Lee, Jee-yeon (2009). Examining the collection management proces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247-267.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3.247

Lee, Jeong-Mee (2013). Understanding big data and utilizing its analysis in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53-7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4.053

Lee, Kyung-Min (2008). A study of librarian's identity in digital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1), 157-174. https://doi.org/10.14699/kbiblia.2008.19.1.157

Lee, Nam-Gyu, Lee, Jun-Soo, & Yoon, Sung-Kyu (202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visual structure of reading room in public library: A comparative study on the visual structure of public libraries built before and after 2010.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69, 29-38.

Li, Yuan & Kim, Jong-Seo (2019). A study on the change of reading space elasticity in public libraries: Focus on domestic and foreign cases. Journal of the Korea Furniture Society, 30(2), 143-150. https://doi.org/10.22873/kofuso.2019.30.2.143

Library Act, Act No. 21090.

Lim, Jeong-Hoon, Oh, Hyoung-Seok, & Lee, Byeong-Ki (2021). A study on the space innovation of public libraries belonging to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4), 103-126. https://doi.org/10.16981/kliss.52.4.202112.10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esidential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4). Library Awareness Survey and Public Relations Strategy Study (12-1371902-000018-01).

Noh, Young-hee & Sim, Hyo-Jung (2023). A study on the proposal of core values and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2), 123-150.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2.123

Park, Hee-Jin, Kim, Jin-mook, & Cha, Sung-Jong (2021).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public librarian's core competency valu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1), 335-36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1.32.1.335

Park, Il-Jong & Jung, Jin-Han (2006). A study of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rogram of the information services in junior college libraries of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2), 73-95.

Park, Ji-in & Park, Ji-Hong (2021). A study on the job duties and competencies of data librarians: Using job advertisement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3), 145-16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3.145

Park, Tae-Yeon, Han, Hui-Jeong, Oh, Hyo-Jung, & Yang, Dongmin (2018). A study on the librarian's key tasks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327-356. https://doi.org/10.16981/kliss.49.2.201806.327

Reading Culture Promotion Act, Act No. 19794.

Shin, You-Mi & Park, Ok-Nam (201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2), 105-131. https://doi.org/10.3743/kosim.2019.36.2.105

Son, Da-Hee & Lee, Nam-Gyu (2025). A study on the changes in reading area configuration and visual perception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y users: Focusing on case studies of Korean and Japanese public libraries since 2015.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20(5), 345-356. https://doi.org/10.35216/kisd.2025.20.5.345

Yoon, Hee-Yoon (2007). Methods and strategies of 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79-99. https://doi.org/10.16981/kliss.38.2.200706.79

Yun, Hee-Jin (2021).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ransitional space in the library. KIEAE Journal, 21(6), 95-100. https://doi.org/10.12813/kieae.2021.21.6.095